

제1장 서론

Introduction

우리나라 의학학술지에서 중복출판은 얼마나 되고 또한 얼마나 변화가 있는가? 대한의학 학술지편집인협의회(의편집) 출판윤리위원회에서는 중복출판 현황을 조사하였다. 2004년도 KoreaMed에 등재된 9,030개 논문에서 455개를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27편(5.93%)이 중복출판 기준 논문으로 밝혀졌고, 1편은 4편에 중복, 26편은 2편에 중복이었다. 29편의 논문 가운데 19편은 복제(copy), 4편은 분절출판(divided fragmentation or salami publication), 6편은 덧붙이기출판(redundant, overlapping, repetitive or imalas publication)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[1]. 이 작업은 2007년도에 이루어졌다. 이후 매년 같은 작업을 시행하여 중복출판율의 변화를 관찰하고 있어 2004-2008년도 분량에 대한 5년간의 조사 결과도 곧 알 수 있을 것이다.

우리나라 의학학술지에 중복출판은 1999년부터 의편집 워크숍에서 다루어져왔으나[2]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과학계에서 화두로 등장한 것은 2005년 이후이다. 2005년 우리나라 황우석 교수가 Science에 실은 논문이 조작이라고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밝힘으로써, 연구출판윤리문제가 과학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관심을 끌었다[3]. 이후 의편집에서는 2006년도 정기총회 워크숍에서 ‘중복출판과 이차출판’을 다시 한 번 다루었다[4].

왜 많은 저자들이 중복출판을 시도하며 또한 그 내용이 어렵지 않게 게재 허락이 날까? 우선 많은 연구자가 언어를 바꾸어 투고하므로 해당 영문지 전문가 심사나 편집과정에서 국문지에 해당 논문이 이미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 어렵다. 또한 언어가 같더라도 동시에 두 학술지에 투고한 경우는 심사과정에서 발견하기 쉽지 않다. 두 번째, 투고하는 연구자가 언어가 다르면

중복출판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 경우로, 얼마 전까지는 국문논문을 영문으로 다시 정리하여 국제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로 장려하기 까지 하였다. 세 번째, 중복출판임을 알면서도 국문지에는 전공의 자격심사 충족요건으로 투고하고 국제학술지에는 연구비 보고용 또는 승진이나 재임용용으로 투고하는 경우이다. 네 번째는 중복출판이 출판윤리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를 모르거나, 복제가 아닌 분절출판이나 덧붙이기출판도 중복출판인지 모르는 경우이다.

위 사유 중 첫째와 셋째는 고의성이 있다고 여기므로 중복출판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으로는 교정하기 힘들다. 두 번째 사유는 이차출판과 중복출판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충분하다. 이 차이를 이해한다면 앞으로 중복출판 발생 건수는 대폭 감소할 것이다. 문제는 네 번째 사유로 모르고 한 경우이다. 우리가 학생이나 석박사과정 및 전공의 훈련 과정에서 그동안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것이므로 귀책사유가 의사 사회 및 의학교육, 졸업 후 교육에 있다. 최근에는 학교, 수련병원 및 학회마다 연구출판윤리에 대한 강의를 열어 교육과 훈련을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나라 의학논문에서 중복출판은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.

이 교재는 이런 훈련 과정 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복출판의 여러 유형을 주로 복제, 분절출판, 덧붙이기출판을 중심으로 나누어서 그 예를 해당 논문에서 가지고 와 변형하여 실어 원전을 밝히지 않으면서 설명하려고 하였다. 앞으로 논문 작성을 준비하는 모든 연구자는 물론 편집인 및 심사자가 특정 연구 논문이 중복출판에 해당하는지 사전 판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. 중복출판의 정의를 설명하고, 유형 분류 후 사례집에 이어 질의 응답을 싣고, 마지막에 다른 연구자 자료와 비교하고 또한 어떻게 중복출판을 예방할 수 있을지 기술하였다. 아무쪼록 편집인, 원고편집인, 전문가심사자, 투고자가 중복출판 여부를 이해하는 데 도움되기 바란다.